**Kenneth Mathews 박사, 창세기, 세션 7,   
노아와 홍수, 1부, 창세기 6:9-9:29**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노아와 홍수, 1부, 창세기 6:9-9:29입니다.   
  
일곱 번째 세션은 노아와 홍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저자가 노아와 홍수 사건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첫 장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6장과 7장은 노아의 임무를 준비하고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장에는 홍수가 줄어들고, 8장은 노아와 그 가족이 상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 그런 다음 노아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는 땅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6장, 7장, 8장은 홍수의 상승과 하강에 관한 것입니다.

9장은 또한 제목 아래에 속하며, 이는 노아의 세대이고,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땅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게 주어진 많은 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홍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고려할 때, 저자의 마음 속에서 노아와 홍수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그의 신학적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였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와 홍수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족의 우주적 역사에 관해 창세기 저자가 제시한 논제의 매우 좋은 예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전체 개념입니다. 1장 28절의 축복을 인간 가족에게 위임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축복을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이 번식하고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축복에 대한 위협이 있으며, 에덴동산에서의 반역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인간의 사악함이 너무 널리 퍼져서 강렬해져서 이제 이 홍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사악함으로 인해 인간 가족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에덴동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과 에덴동산 기록과 함께 반복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약속받습니다.

그들은 정원 밖의 삶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 밖에서 우리는 가문의 의로운 후손인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셋을 대신한 인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4장 뒤에는 5장에 나오는 셋 족속 의 족보가 나옵니다 .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되는 후렴구가 있고, 그 후에 그는 죽고 셋 족보에 있는 각 사람에게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 가족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교제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길로 행한다면, 우리는 6장 1절부터 8절이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그 다음의 기록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절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홍수. 그것이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다리가 되는 이유는 반역하고 악한 가인의 후손과 의로운 셋 족속 의 후손 사이의 통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계가 넘어지고 그 결과 노아 시대의 그 시대를 특징짓는 사악함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의 세대에서 두드러진 인물인 노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 가족의 점점 더 큰 타락과 파괴를 향해 발전해 온 인류의 사악함과 폭력에 대한 적절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자비로운 보존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약속인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된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점진적인 구원 계획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 죄와 폭력의 압도적인 어둠 한가운데에 있는 그 빛의 광선은 노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신학적 메시지와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 길고 상세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적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반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기본 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취하시고 그것을 뒤집으시고, 창조를 취소하신 다음, 그분의 창조에 개입하여 회복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배열을 살펴보면 물은 창조와 소멸을 압도하며 사용된 언어는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창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입하여 재창조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문학적 배열을 살펴보면 6장과 7장이 위임, 방주 건축, 그리고 물의 상승, 즉 최고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 예를 들어 아라라트 산에 오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은 배에서 내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노아에게서 그의 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게 될 완전히 새로운 후손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은 9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명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갱신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보증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는 9장 20절부터 29절까지에서 노아의 술 취함과 그가 그의 아들들에 대해 불러일으킨 저주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복한 분위기로 끝나지 않고 확실히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구조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감독하고 계시며 그것을 가져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으면 행복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홍수가 일어나는 기간은 약 1년 정도 됩니다.

7장 11절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8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홍수. 이제 방주 자체는 길이가 약 150야드이고 너비가 약 25야드이며,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설계된 떠다니는 직사각형 바지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안전, 해방의 감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긴 세월 동안 감옥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을 물로부터 지켜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구조에 대해 마음 속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장 외에는 선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돛이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아와 그 가족의 생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비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150야드가 축구장 반 정도의 길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이 해석자들에게 미치는 길이와 세부 사항,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7번째 세션은 1부입니다. 세션 8이 우리 시간을 마무리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다음 세션입니다.

고대 근동 배경의 관계, 성경적 평행선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프리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드바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읽지만 오히려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도가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지도책이고, 아마도 성경 뒷부분에 일련의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 서쪽과 동쪽으로 지중해를 상상할 수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자체는 두 강의 땅이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강의 호랑이를 가리킨다.

기원전 3천년 초, 고도로 문명화된 국가인 수메르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에 묘사된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메르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카드인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왔고, 다음에는 아모리인의 침공이 이어졌습니다. 아모리인의 가장 위대한 왕은 그의 법전인 함무라비의 법으로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원전 1800년

보시다시피, 제3천년과 제2천년으로 인해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지역,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모리인 지역에는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 따라서 모든 역사가들은 성서에 나오는 대로 이 지역이 아마도 문명의 발상지였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자, 그것은 동쪽에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물론 이집트의 위대한 민족인 이집트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인과 메소포타미아 민족 그룹의 차이점은 사회 정치적 생활과 관련하여 나일강이 이집트 정권에 훨씬 더 많은 안정성과 연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초기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이집트 통치가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은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그룹이 어떻게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한 여러 다른 그룹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미래의 식량과 안정의 원천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집트를 구입하고 생활합니다.

따라서 이집트 왕조는 대부분의 민족 체제에서 그 수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생각할 때 고대 이름인 가나안을 사용하면 이 두 강대국 사이에 해당하며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팔레스타인이 될 것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진 곳을 상상해 보면 이곳은 농경지, 즉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나 초승달과 같습니다. 동쪽의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여 마음속으로 북서쪽으로 가다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 이집트까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초승달, 즉 최초 문명의 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가나안은 우리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대해 말했듯이 북동쪽의 헷 족속,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인들과 같은 북방 세력 사이의 중요한 다리였으며 매우 중요한 육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그 지역을 지배했던 이들 강대국들 중 어느 누구라도 이 고대 근동의 비옥한 땅덩어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지역 내에는 성경이 고대 가나안과 이후 이스라엘을 점령한 기간 동안 단일한 종족 집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와 토라 전체에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등 다양한 종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획일적인 제국이 아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수많은 도시 국가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왕들은 기원전 3000년과 2000년의 오랜 역사 동안 때로는 그들 자신 안에서 독립과 상호의존성을 보여 주었고, 다른 때에는 이집트인이나 메소포타미아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 국가의 생활 방식은 도시적이었고, 그 주변에는 그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벽 도시가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들과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은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이형성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Di, DI는 두 가지 형태, 즉 삶의 양식을 끌어내는 두 가지 형태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형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족장들의 삶에 반영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들이 이주하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임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들의 목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족장들을 위해 지방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들의 생활 방식이고 여러분은 그것이 족장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초기 인류 역사의 창조에 관해 이들 문명이 말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잠시 멈춰서 고대 세계의 문명으로부터 배울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매우 흔한 것은 비교하고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공통점이 많을 수도 있고, 반면에 유사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부수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본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다른 종족 그룹의 경우, 그들의 이데올로기에서 지배적인 것은 그들이 자연 종교에 어떻게 부여되는지일 것이고, 이것은 다신교에 있는 다양한 신들이 창조 질서의 영역이나 지역을 통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늘과 지하세계. 그렇다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직접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 이야기에 대한 보편적인 공통 기억을 보는 것입니다 . 홍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이야기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 즉 가구를 이해하는 것과 같고, 다른 문화가 창조와 대홍수를 묘사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배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그의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기원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토라를 읽을 때 초기 인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즉,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에 대한 설명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창조 기록과 대홍수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우리가 차별화해야 할 한 가지는 신화, 예를 들어 전설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혼동하기도 하며, 신화에 대해 항상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화를 환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부터 시작해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는 사실이 아닌 허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화가 고대 민족의 이데올로기와 신학을 기술할 때 작용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화가 실제로 신들과 인간 삶의 창조 질서를 기술하는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의 목적은 우리가 즉시 생각하는 자연뿐만 아니라 고대 인류 가족의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 및 정부 제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신들이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신과 자연, 물질과 육체 사이에는 공통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문화에서 태양, 즉 태양신으로 명명된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Re, RE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은 태양에게 활력과 생명을 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에 의해 통치되고 통제되는 태양 자체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태양이 이념적으로 숭배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의 대부분은 신들에 대한 선행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신들 자체의 창조나 근원을 신통기(Theogony)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자연의 적대적이거나 유익한 측면을 호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들 에게 호의를 베풀어 신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이집트에 있고 거기에서 계정 생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은 없습니다. 신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헬리오폴리스의 아툼(Atum of Heliopolis)입니다.

아툼, 아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나오는 단일 근원은 그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성경이 보여주듯이 창조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창조물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을 제가 구별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창조는 신성하지 않으며, 그분, 곧 하나님은 창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 존재로 선언되는 방식으로 그분에게 의존합니다. 이제 아툼에 관해서는, 그는 창조 이전의 물에서 솟아오른 원시 언덕, 생각해보면 이 원시 물에 둘러싸인 작은 언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을 존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서는 하느님에게는 시작이 없다고 알려 줍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재채기, 침 뱉기, 자위를 통해 이 작은 언덕인 아툼(Atum)에서 왔습니다.

다음은 Atum의 인용문입니다. 그는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와는 반대로 멤피스 출신의 이집트인들 사이에는 또 다른 신학적 관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멤피스 신학이라고 불리며, 또한 선재하는 힘, 항상 비인격적인 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이 힘은 지적 원리인 프타, 즉 PTAH라고 불립니다.

말은 이해되는 한 이러한 지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프타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여 원시 언덕, 즉 모나드에서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이 모나드는 단일 개체, 즉 Atum입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와의 연관성은 피상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를 통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법의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집트인의 관점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한, 그것은 진흙을 만드는 것, 즉 진흙을 빚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관적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2장 7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레로 사람을 만들고 여신이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니 창세기가 생각난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기록에는 여자 창조에 관해 아주 많은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 반면, 이집트 문학에서는 여자 창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신화적 소재를 많이 생산한 메소포타미아로 가보자. 가장 잘 알려진 창작물은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입니다. 제가 철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누마, 에누마, 그리고 엘리쉬, 엘리쉬. 이 기록은 두 가지 원시 물을 묘사합니다. 수컷 원시수는 압수(Apsu) , APSU, 압수(Apsu) 이고, 암컷은 티아맛(Tiamat), 소금물인 티아맛(Tiamat), 티아마트(TIAMAT)이다.

이것은 물론 물의 공존을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물입니다. 그리고 압수(Apsu)를 살해한 신이 있고 , 그 결과 티아맛(Tiamat)은 보복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와 그녀의 악마 세력은 왕, 즉 장군 킹구( Kingu) 아래로 모입니다 . 그래서 압수를 죽인 살인적인 신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

그리고 티아마트의 악마 세력과 신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들의 만신전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티아맛과 싸울 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둑(Marduk)입니다. 그는 Kingu 및 Tiamat 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보상으로 Marduk은 궁전을 받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빌론의 대왕과 왕과 그 백성의 사회 구조를 신격화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이념은 그것이 신들의 삶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질서를 바벨론에서의 삶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바빌론 왕은 마르둑의 보호와 공급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글쎄, Marduk에 의해 살해된 Kingu 로부터 그의 피와 점토로부터 인류의 근원이었던 살해된 신인 인간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Marduk이 조개처럼 Tiamat을 죽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녀 몸의 상반신은 하늘이며, 이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모든 자연과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속시키는 신화의 아이디어입니다. 신들과 함께하고 의존하는 것.

이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의 창조에 관해서 당신은 주된 사상이 우주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문화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혼돈의 신과 코스모스의 신의 싸움에 관한 신화가 일종의 창조 이념으로 귀결되었다는 견해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엘은 가나안 판테온의 최고신이었으며, 70명이 넘는 아들의 신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확실히 성경에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바알, 바알(BAAL)이다. 그는 활동적인 신, 비의 신, 결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주를 대신하여 혼돈의 신들을 물리치고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명 질서를 가져오는 엘의 아들 70명의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전투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설명은 바알과 물인 Yam 사이의 가나안어와 히브리어로 YAMM, YAMM입니다. 자, 창조계좌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창세기에 제시된 세계관은 신과 여신의 창조에 관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실제로 반대, 심지어는 논쟁적이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이전 세션에서 언급했듯이 동기의 차이입니다.

이 창조에서 주님을 향한 동기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의 아들을 주신 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으니 곧 그 여자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 이제 홍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대홍수 사건에 대한 가장 발전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가메시 서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석판에는 반신적인 인물인 길가메시가 어떻게 영생을 추구하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들로부터 불멸의 존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명하려는 이 사람, 내가 말해야 할 이 신, 그리고 사람은 노아의 대응물이다.

말하자면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노아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트나피슈팀입니다. 철자를 알려드릴까요? Ut, UT, 오히려 UT, NAP, nap, Utnapishtim, ISH 및 TIM.

그래서 UTNAPISHTIM. 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부터 홍수까지 실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이름은 아트라하시스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아트라하시스, 하시스. 이제 아트라하시스에서 우리는 왜 이런 대홍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입장에서 동기는 인간들이 어떻게 신들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시끄러운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고, 따라서 홍수가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끄러운 인간들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지만 홍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삶과 죽음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 길가메시 서사시는 내가 말했듯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나피쉬팀은 불멸성을 얻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를 찾기 위해 체류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것이 한 번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자신이 불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우나피쉬팀이 길가메시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식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그 식물을 회수합니다. 길가메시나 그 식물의 참여자를 재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식물입니다. 불멸을 주진 못하더라도 젊음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뱀이 있는데, 그 식물을 훔치고 길가메시에게서 그 소유물을 빼앗는 창세기의 기록이 즉시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창세기와 비교해 보면, 홍수 기록에서 일어나는 일의 기초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각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류가 심각한 부도덕에 빠진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홍수를 다루셔야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에서 찾을 수 있는 홍수 이야기와 달리 고대 근동 지역의 수메르 홍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창세기에서 발견한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제 성경의 홍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중요합니다. 우선 모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6장 18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덟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 전체와도 맺은 것입니다. 성경에 언약(Covenant)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발견하게 될 언약,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입니다. 관계. 그리고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노아 가족, 그리고 축복과 보존의 약속으로 언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홍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단어의 반복과 이러한 숫자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일곱의 반복, 40일의 낮과 밤이라는 표현, 그리고 150일의 반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종류의 서사를 구성할 때 그런 종류의 반복이 갖는 이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홍수 이야기의 응집력과 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두세 가지 서로 다른 소스를 엮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서사 구조에 대칭성을 부여하는 반복은 이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소멸, 재창조의 메아리가 있고, 말장난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Noah)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노아(Noah), 노아(Noah)로 발음됩니다. 8장 4절을 보면, 8장 4절에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노아처럼 들립니다.

이는 히브리어 어근 nuach , nuach , nuach 에서 유래되었으며 , 실제로 노아는 계속되는 인간 생명의 유산에 안식을 주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라와 관련된 중요한 연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날 제가 언급했던 것은 방주에 관한 단어 놀이였습니다.

방주라는 단어는 홍수 이야기 외에 다른 구절에서 발견되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바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방주와 바구니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둘 다 물 속에 있다가 물에서 구출됩니다. 아기 모세의 경우에는 나일강의 물이었고, 홍수의 경우에는 물론 홍수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떠다니는 직사각형 바지선의 선장이시며 새 창조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존하고 모든 종족이 나올 새 아담인 노아에게서 나타나게 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9절의 머리말을 보면 노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동료들에 비해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으며,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와 관련된 메시지는 인류 가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독자이시라는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줍니다. 7장에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이었습니다. 문. 노아와 신세계를 주님의 지시에 따라 노아가 지은 이 방주의 안전망에 가두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8회차는 2부, 노아와 홍수가 될 것입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노아와 홍수, 1부, 창세기 6:9-9:29입니다.